

Morning Meeting Brief

Daishin's View

[Daishin's View] 2026년 6월 3주차

- **금리:** 금리의 변동성 확대 여지 있으나, 절대 금리의 매력도 ↑ **환율:** 정부 정책 대응 본격화, 전쟁 합의 시 추가 되돌림 예상
- **국내 증시:** 7, 8월 강세는 실적 호조와 종전의 나비효과 **글로벌 증시:** 안도와 경계 사이, 빨라진 금융시장 시선 이동
- **원자재:** 38번째 종전 가능 언급 트럼프, 유가 조정은 매수 기회 **부동산:** 고가시장 제외 강보합세 기대, 상업용 기간 조정 장기화 전망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y

[주간 퀀틴전시 플랜] 미국-이란 협상 타결 vs 6월 FOMC 경계심리. 이번에도 흔들리면 산다

- 미국-이란 종전 협상의 나비효과 기대.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
- 케빈 워시의 첫 FOMC를 대기. 금리변수로 인한 노이즈 경계
-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하며 상승추세 재개 예상. 주도주 매집, 버티기 전략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38번째 합의 임박 발언 끝에 살아난 종전 협상 기대감

- 종전 협상 기대감 확산, 반도체 Top2 헤지펀드 이슈에 상승폭 일부 반납
- 25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 전환, 시장 전반으로 매수세 확산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로 대형주 중심 강세 전개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2Q26 Preview] 신세계: 외국인과 내국인 매출 호조의 양 날개로 난다 (목표주가 +67% 상향)

- 백화점 국내 및 인바운드 매출 호조로 2분기 기준점 매출 26% 성장 전망
- 면세점도 큰 폭의 흑자 전환 지속 전망
- 외국인 인바운드 증가에 가장 수혜가 큰 대표 유통기업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2026년 6월 3주차

[금리] 국고 3년 3.50~3.95%

금리의 추가 변동성 확대 여지 있으나, 그만큼 절대 금리의 매력도 높아진다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가시화로 금리의 변동성 확대 및 분출 가능성 높
아. 다만 단기간에 금리 레벨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되돌림 과정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 미국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우려, 기대 인플레이 상승 부담이 장기물 중심
으로 크게 반영되고 있음.

[환율] 달러원 환율 1,430~1,560원

정부 정책 대응 본격화, 미-이란 전쟁 합의 시 추가 되돌림 예상

달러-원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연달아 경신하자 정부의 투기성 거래 조사, 국
민연금 환혜지 가동 등 정책 당국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과도했던 달러 매수 심리
진정. 그러나 정부 정책 대응은 환율 상승의 근본 요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속도 조절
의 효과가 강함.

[국내 증시] KOSPI 7,000~8,800p

7, 8월 KOSPI 강세 = 실적 호조 + 미국/이란 종전 나비효과.

AI 수익성 논란, 고용 서프라이즈, 물가 레벨업으로 인한 채권금리 상승압력은 단기
노이즈. KOSPI 시장 및 주도주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전개. 7월, 8월 KOSPI 강세
전망 유지. 미국 이란 종전 협상 타결시 유가,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 안정/정상화 예
상. 18일 FOMC 이후 2분기 프리 어닝 시작과 함께 실적 전망 상향 조정.

[글로벌 증시] S&P500 7,000 ~ 8,400p

6월 글로벌 증시, 안도와 경계 사이. 빨라진 금융시장 시선 이동 '통과 긴축 부상'

6.5일 美 증시 급락. 글로벌 통화 긴축 부상과 이에 연동되는 증시 변동성 확대라는
과정 시작. 10일 美 5월 CPI, 11일 ECB 금리 인상 확인할 때마다 금융시장 우려를
확산시키는 기폭제. 6월 상반기 이란 전쟁 종전 소식(가정), 증시 반등 영향 미치는
역할 위상 축소. 종전 후에도 시차를 둔 물가 상승 불가피.

[원자재] WTI 75~100\$/bbl.

38번째 종전 가능성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다만, 유가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라며 38번째 주장,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 명령.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포기했다 보도, 유가는 지정학 리스
크 후퇴로 하락 전환. 종전 시 WTI 가격은 배럴당 70달러 후반까지 하락 가능. 다만,
이는 저가 매수 기회. 1)장기간 유정 폐쇄로 인한 워터 코닝 가능성과 2)해협 재개방
시 유조선들의 병목 현상 가능성 주목

[부동산] 주택 : 강보합, 상업 : 약보합

주택은 고가시장 제외하면 강보합세 기대, 상업용은 기간 조정 장기화 전망

주택 : 세제 강화 수준에 따라 고가 시장 추가 조정 가능하나, 전세가를 높은 중저가
지역 및 구매력 급증한 수도권 동남권 지역 가격 상승 지속 예상, 임대 시장은 전반
적 강세 전망

상업 : 지속적인 시장 금리 상승과 오피스 임대 시장 둔화로 보수적인 관점 필요, 물
류 섹터는 우량 자산 중심으로 임대 시장 회복 나타나 조정 시 선별/분산 투자 의견
유지

미국-이란 협상 타결 vs 6월 FOMC 경계심리. 이번에도 흔들리면 산다!

- 미국-이란 종전 협상의 나비효과 기대.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
- 케빈 워시의 첫 FOMC를 대기. 금리변수로 인한 노이즈 경계
-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하며 상승추세 재개 예상. 주도주 매집, 버티기 전략

미국-이란 종전 협상의 나비효과 기대.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

필자는 그동안 7~8월 중시 강세 근거로 2Q 실적 시즌과 미국-이란 종전 협상의 나비효과를 언급. 실적/펀더멘털 장세에서 금리 변수로 인한 노이즈는 비중확대 기회임을 강조. 2주전 시 수익성 논란에 이어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한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KOSPI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자극. 지난주 물가, 파생 수급 압박, 글로벌 유동성 위축을 소화하며 KOSPI는 7,400선 지지력을 확보, 1차 가격 조정을 거쳤다고 판단

다만, 안도하고,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정이 타결되었지만, 1) 유가는 85달러를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 달러화는 고점권에서 소폭 하락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 2)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도 현재 Risk Off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케빈 워시의 첫 FOMC를 대기. 금리변수로 인한 노이즈 경계

현재 6월 FOMC 대기 중. 매파적 금리동결 이후 1) 점도표 후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절도표 또는 케빈 워시 기자회견에서 명시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할 수 있고, 2) 성명서나 케빈 워시 발언을 통해 완화 편향을 공식 철회하거나 3) 인플레이션 고착화, QT 속도 조절 시사 등 매파적인 스탠스를 피력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한편, 이미 시장은 26년, 27년 각각 1번 금리인상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금리인상 시사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유입될 수 있음. 케빈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고, 첫 FOMC회의, 기자회견임을 감안할 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피력할 것으로 기대,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6월 FOMC 결과가 오히려 분위기 반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음.

또 한 번 금리변수로 인한 노이즈 발생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 이 경우 KOSPI는 7,000선 전후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분위기 반전을 모색해 나갈 전망. KOSPI 7,000선은 선행 PER 6.62배로 금융위기 당시 저점 6.27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자 처음으로 7배를 하회하는 것. 3월말 저점 이후 상승 폭의 50% 되돌림 수준이기도 함. FOMC 전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면 실적 시즌에 대비한 비중확대 전략 유효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하며 상승추세 재개 예상. 주도주 매집, 버티기 전략

이번주 6월 FOMC 결과만 소화한다면 이후 본격적인 2분기 프리어닝 시즌으로 돌입, 실적 전망 상황 조정에 근거한 상승추세 재개 예상. 이미 실적 전망 상황 조정이 재개되었고, 7월 첫째주 실적 가이드를 공개하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 상황 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가 강해질 전망. 실적 전망 전체 국면인 6월에도 선행 EPS는 상승 지속. 5월말 1,015p에서 6월 12일 1,056p로 레벨업. 현재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7.69배에 불과. Deep Value 구간에서 실적 전망 상황 조정은 KOSPI 상승 압력을 높이고, 상승 여력을 확대해 나갈 전망

이번주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매도 실익은 없다고 판단.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해 매집하거나 버티기 전략이 유효. 단기적으로 실적대비 저평가/소외주 중심의 순환매 대응 필요. 화학, 에너지, 철강, 기계, 증권, 건설, 조선 등이 실적대비 저평가 수준에 위치

한편, 최근 조정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전력기기, 조선, 방산 등이 과열. 실적대비 고평가 부담을 완화/해소. 이들 업종 중심으로 7월, 8월 상승추세 재개에 대비한 주도주 매집 전략 병행. 단기 변동성을 거친 뒤에는 실적 모멘텀을 근거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전력기기 등 시 밸류체인 관련주와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분위기 반전 모색, 상승추세 재개 예상

38번째 합의 임박 발언 끝에 살아난 종전 협상 기대감

- 종전 협상 기대감 확산, 반도체 Top2 헤지펀드 이슈에 상승폭 일부 반납
- 25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 전환, 시장 전반으로 매수세 확산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로 대형주 중심 강세 전개

종전 협상 기대감 확산, 반도체 Top2 헤지펀드 이슈에 상승폭 반납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추가적인 공격 계획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언급. 반면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협상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 그럼에도 시장은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낙관론이 확산. 이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위험자산 선호 확대

미국 5월 PPI는 전년대비 6.5% 상승하며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중동 리스크 완화를 주목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11.7%), 샌디스크(+14.5%), 인텔(+9.3%) 등 반도체 업종이 급등세를 시현. 이는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를 지지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갭상승 출발, 지수 강세 주도. 다만 글로벌 은행들이 헤지펀드가 스왑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투자하는 비용을 인상했다는 소식. 이에 투자심리 위축되며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었고, 상승폭 일부 반납

반도체 Top2: 삼성전자(+7.9%, 고가 +13.4%), SK하이닉스(+2.3%, 고가 +9.7%)

25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 전환, 시장 전반으로 매수세 확산

외국인 투자자는 25거래일 만에 현, 선물 동반 순매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하는 경향

장기간 이어졌던 외국인 매도 흐름이 반전된 점은 투자심리 개선 요인. 달러-원 환율은 1,510원대로 급락했으며, 원화 약세가 진정될 시 외국인 수급에 확대될 여지. 코스피, 코스닥의 ADR은 각각 67.5%, 61.3%까지 상승. 최근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주도주 중심의 제한적인 상승에서 벗어나 업종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된 점은 긍정적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로 대형주 중심 강세 전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 대부분 업종 상승 마감.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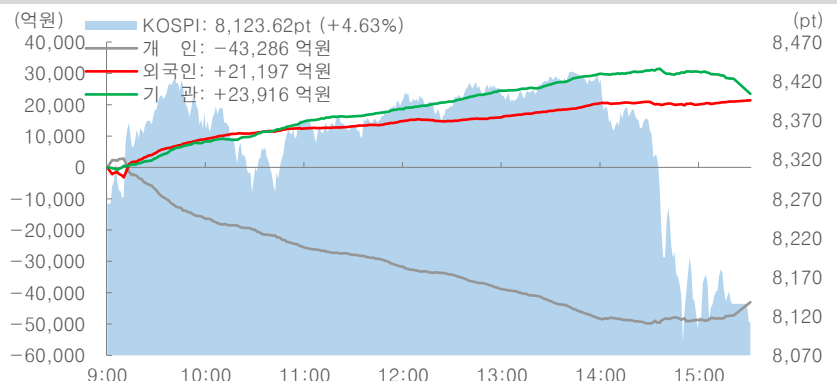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6.3%), 현대로템(+10.7%), 한화시스템(+8.4%)

건설: 현대건설(+28.4%), GS건설(+9.9%), 대우건설(+6.9%)

조선: 한화오션(+7.9%), 삼성중공업(+6.3%), HD한국조선해양(+6.0%)

그외 대형주: 한미반도체(+24.1%), HD현대일렉트릭(+9.4%), 삼성SDI(+8.1%)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신세계 (004170)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홍성원 RA
seongwon.hong@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000,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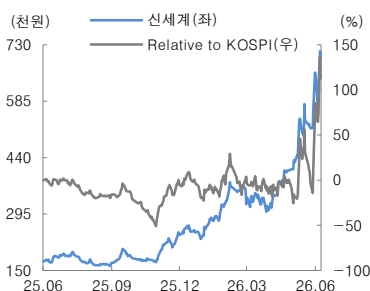
695,000

(26.06.12)

유통업종

KOSPI	8123.62
시가총액	6,56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2%
자본금(보통주)	4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14,000원 / 161,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24억원
외국인지분율	24.11%
주요주주	정유경 외 3 인 29.80% 국민연금공단 13.4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7.4	106.5	170.4	291.3
상대수익률	48.1	42.0	38.7	40.7



외국인과 내국인 매출 호조의 양 날개로 난다

- 백화점 국내 및 인바운드 매출 호조로 2분기 기준점 매출 26% 성장 전망
- 면세점도 큰 폭의 흑자 전환 지속 전망
- 외국인 인바운드 증가에 가장 수혜가 큰 대표 유통기업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 1,000,000원으로 상향(+67%)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1,000,000원(12개월 FWD 예상 P/E 18배)으로 상향

국내 백화점 업계는 내수 소비 회복뿐 아니라 인바운드 관광객 매출이 급증하며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함. 동사의 주요 계열사가 인바운드 증가에 모두 크게 수혜를 입는 업태로 올해 백화점 및 주요 자회사 실적이 큰 폭으로 동반 개선되는 모습이 지속될 전망. 외국인 매출 증가 추세는 K-culture의 인기와 원화 약세 트렌드를 고려할 때 당분간 이어질 전망. 지난 23-24년 일본 백화점 업계가 외국인 매출 증가로 valuation이 re-rating되었던 것처럼 한국 백화점 업계도 당분간 실적 개선과 함께 re-rating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

2Q26 Preview: 외국인 매출 고성장

연결 기준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2,957억원(+14%, yoy), 1,613억원(+114%, yoy)으로 전망 [백화점] 2분기 백화점 기준점 매출 성장률은 +26%(관리 기준)로 전망. 자산 효과에 따른 양호한 소비 심리를 바탕으로 고마진 카테고리인 국내 패션이 두 자리 수 이상 증가가 지속되며 마진을 개선 시키고, 외국인 매출액 증가율이 1분기 90%에서 2분기 110%(본점 +200% 이상) 이상으로 증가폭이 더 확대되며 백화점 매출 성장을 견인할 전망. 외국인 고객이 집중되는 명동 본점의 기준점 성장률이 1분기 55%에서 2분기 70%를 상회하는 등 원화 약세와 한일령 수혜 등 국내외 요인에 의해 성장률이 2분기에 다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 [신세계 DF/SI] 신세계 DF는 FIT 매출 증가와 공항점 정규 매장 면적 확대로 면세점 매출이 성장하고 시내점 활인율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yoy 흑자 전환하며 대폭 개선 전망. 신세계인터도 국내 패션 소비 호조에 힘입어 yoy 흑자 전환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3Q25	2Q26(F)		3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순매출액	1,694	1,847	1,725	1,725	1.8	-6.6	1,791	1,707	4.3	-1.1
영업이익	75	198	102	161	114.1	-18.5	138	185	85.8	14.9
순이익	-2	120	32	71	흑전	-40.6	40	87	146.5	21.4

자료: 신세계,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순매출액	6,570	6,929	7,289	7,823	8,376
영업이익	477	480	802	902	911
세전순이익	195	132	690	791	791
총당기순이익	187	65	531	609	609
자배지분순이익	108	14	425	488	548
EPS	10,948	1,440	44,785	51,617	58,004
PER	12.1	171.5	11.7	10.2	9.1
BPS	433,221	460,432	509,666	559,603	613,300
PBR	0.3	0.5	1.4	1.2	1.1
ROE	2.5	0.3	9.1	9.6	9.9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신세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